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2월 1일(금)

(윤력 10월 19일)

Пятница

1 декабря 2023 г.

№ 46 (1206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3일 러시아에서 무명용사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5년 만에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다자녀 가구 3배 증가

사할린 사회복지부가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한 '인구통계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5년간 사업 총결산을 했다. 사할린 지역에 사는 다자녀 가구의 수는 현재까지 8천 가구에 증가했다. 2019년 수치보다 거의 2천 가구가 더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할린에서 이러한 범주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조치 덕분에 가능했다

따라서 사할린주에서는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해 50가지의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다. '인구통계학' 기획의 일환으로 주 사회복지부를 통해 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그것은 어머니 지원금, 첫 아이 출산 시 일시금 지급, 세째 아이 출산 시 매달 보조금 지원, 지역 밖에서 시험관 아기시술비 지원이다.

사할린의 여성 다리아 호르호리나는 슬하에 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받고 있다.

"다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나에게 대단한 행복이다. 나에게 세 딸이 있다. 지원금을 받는 덕분에 우리는 주거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주택 구매를 위한 200만 루블리와 어머니 자금, 대통령으로부터 50만 루블리를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가정지원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어머니 지원금으로서 첫째 자녀 출산 시 15만 루블리를 지급받는다. 예전에는 19세 - 25세의 여성들에게만 지급됐던 금액이나 지금은 모든 연령의 어머니에게

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둘째 출산 후 다음 세째 아이 출산 시 25만 루블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에 사용한다. 심지어 어머니 지원금에 대한 증서가 자녀의 형제나 자매에게 증여되어 자녀의 교육에 사용할 수도 있다. 5년간 첫 아이 출산 시 지원책을 사할린과 쿠릴 주민 6천 명이 받았으며, 둘째 출산 시 세째 출산에 대한 보증서를 주민 1만 명이 받았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올라 오를로와 장관이 강조했다.

국민기획 외에도 사할린 지역에서는 수십 개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할린주에서는 사할린의 다자녀 가구의 주택 건축과 구매로 2백만 루블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 쌍둥이 탄생 시 1백만 루블리를 지급하며, 자녀의 휴식을 위한 여행권 비용과 학생의 의류 구입에 든 비용도 상환한다. 새로운 지원책 중 하나는 수영시설 방문 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할린주는 극동 지역에서 유일하게도 대학생 가구 지원책으로서 자녀 출산 시 6만 루블리를 지급한다. 2019년에 사할린 지역에서는 6,150 다자녀 가구가 거주했으며, 현재는 8,054 다자녀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가정들에서 2만6천 명의 자녀가 양육되고 있다. 2019년부터 1,675 다자녀 가구가 주예산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23년,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11월 30일(목)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두 차례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및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의 주최로 개최된 이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아주 및 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과 이정주 주무관,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지원본부의 김성근 본부장, 정할란 팀장, 최소남 과장과 박윤주 과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실 한국에서 대표단이 와서 영주귀국 설명회를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첫 회의는 사할린 시간으로 아침 10시 반에 열렸는데 이 회의는 2023년 영주귀국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한 재외동포청 김민철 재외동포정책국장이 우선 강제징용의 역사를 가진 사할린동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고 올해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이번에 영주귀국사업을 이어받게 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면에 계속)

##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단신

### 12월 7일에 사할린 주지사와 직접 소통

12월 7일(목) 15시에 '브콘탁테' 사할린주 정부 공식 페이지와 '오티비(OTB) 사할린 방송'에서 주지사와 직접 소통이 진행된다.

실시간 방송에서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수십 개의 문제들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지사와 소통을 위한 전화는 8(4242)67-03-91로 하고, 이외에도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직접 소통' 항목에 글이나 영상 방식으로 문제들이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의 문제는 '텔레그램'의 '오드노클라스니키' '브콘탁테' 주정부 페이지에서 접수된다.

### 사할린주 물자조달의 투명성,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러시아 사회원에서 2023년 물자조달의 투명성 전국적 순위의 총결산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국내 85 개 행정자치지역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주는 지역 차원의 거래처 부분에서 <높은 투명성>부분의 우승 후보에 올랐다.

물자조달 시장 조사의 일환으로 기획분석 센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4백30만 개 이상의 수속과정들을 분석한 결과 사할린의 총거래액은 24조2천800억 루블리에 달했다.

###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1주간 코로나 19 확진자 120명 발생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할린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명에 달한 가운데 그중 13명이 17세 이하이다. 지난주보다 증가한 확진자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24.8명이라고 러시아소비자보호청이 전했다.

코로나19의 유형 중 급성호흡기 질환(96.7%)이 우세했고, 그외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지역 내 감염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대부분 확진자들은 가벼운 증상(86.7%)을 겪었고, 그외 중증 증상은 2.5%였다.

병인학적으로 이 모든 증상들은 오미كرون 계열 하위종과 연관돼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 전반적인 계절성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상황은 발병 증가추세로 불안정하다.

지난주에 급성호흡기 질환 환자는 1,925명이며, 병인학적으로 A형 독감 환자는 1명으로 기록됐다. 또한 지난 한 주간 급성장염 환자는 176명으로 그중 151명이 아동이었다. 감염병 수치는 그 전주보다 64.5% 증가하여 장기간 평균보다 37.2% 높고, 한 주간 최대 통계수준보다 6%가 높았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23년,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사할린 방문

### (1편의 계속)

김 국장은 이 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한적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지원본부 김성근 본부장도 인사말을 하여 영주귀국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영주귀국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회의는 재외동포청 아주 및 러시아 동포와 정선호 과장이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을 설명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비대면으로 임대주택 배정 및 임대조건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임대주택 배정 기준은 원활한 정착과 편의를 위하여 입주 가능한 LH 건설 임대주택 중 기존 사할린 동포 거주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려고 한다. 실시한 입주 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배정할 예정이다. 1 순위로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고, 2순위는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다. 입주 우선순위 또는 추첨 등을 통해 배정한다. 배정은 내년1월 중순에 배정할 예정이다. 단, 안산 고향마을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가족(1순위)을 우선 배정하고, 실시한 입주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안산시·인천 논현 등 기존 사할린동포 선호지역은 퇴거세대 발생이 적은 관계로 희망지역의 공가가 부족할 경우, 희망지역 외 타지역에 배정될 수 있다.

회의에서 국적 관련 설명, 복지 지원에 대한 설명도 많았다.

2023년 선전 대상자들은 인솔하에 단체로 3차례에 걸쳐 3-4월에 선박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적으로 항공으로 또는 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귀국할 수 있다. 단, 모두가 똑같은 운임비를 받는다.

대상자들은 이날 여러 질문도 하였다.

낮 12시반에 시작된 회의는 2024년 영주귀국 지원 사업 관련 설명회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내년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2021년, 2022년에는 지원 대상은 350명이었고, 2023년에는 270명이었다. 2024년 지원 대상 인원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과 동일하게 270명일 가능성이 높다. 신청접수는 2024년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회의에서 부모사망 자녀 2세 영주귀국에 관한 질문도 여러 번 있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금로서 아직 이들은 영주귀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짧은 사할린 출장방문에 한국대표단은 여러 사할린한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아래에 설명회 자료 일부를 게재한다.

### 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 1. 사업 내용

□ (목적)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주요 내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 2. 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5.26. 제정,

‘21.1.1. 시행)

○ 상기 법제정·시행을 통해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대상범위 확대

- (법적 근거 마련)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 오던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15.12월 한일 정부 간 공동으로 시행해온 영주귀국사업의 종료 합의 이후 '16년부터 동 사업 한국정부 단독 실시

- (지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 자녀 → (확대) 사할린동포,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 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 II. 주요 지원 내용

#### 1. 지원 대상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법 제2조제1항)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배우자)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

- (직계비속)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중 2명 이상이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만을 접수

#### 2. 지원 방법

□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할린동포 중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 신청 필요

○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예정 (영주귀국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사이트에 게재)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역도선수, 국제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사할린의 여자 역도선수 폴리나 피블로위츠가 벨로루시 역도연맹상 공화국 간 프리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경기가 벨로루시의 핀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 중 남자부는 2009년 - 2012년생들이고, 여자부는 2009년 - 2010년생이다.

사할린의 역도선수 폴리나는 체급별 '59kg 이하'종목에 출전하여 3번의 역도 경기를 치르며 용상에서 74 kg, 인상에서 95 kg을 들어올리고 승리를 거두며 총 169 kg을 들어 올렸다.

다음으로 폴리나 피블로위츠는 전 러시아 역도 경기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역도 본선 경기는 홈스크에서 12월 2일과 3일에 열리며, 러시아 연방 10개 지역들에서 역도선수 150명이상이 출전할 예정이다.

### Сахалинк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Тяжелая атлетка с Сахалина Полина Павлович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награду открыты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призы Белорус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и.

Турнир состоялся в белорусском Пинске.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юноши 2009-2012 г.р. и девушки 2009-2010 г.р.

Островная спортсменка выступала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59 кг».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рех попыток тяжелоатлетк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показав результат 74 кг в толчке и 95 кг – в рывке. Сумма двоеборья составила 169 кг.

Следующим стартом для Полины Павлович станут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Они состоятся в Холмске 2 и 3 декабря. Участник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нут более 1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0 регионов РФ.

### '고르니 워즈두흐' 극동 지역의 우수 휴양지로 선정돼

2023년 11월 23일(목) 러시아 산악스키 관광개발과 진흥 목적으로 <러시아의 산들> 국민상 시상식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고르니 러시아. 에르에프'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 단지가 연방 지역에서 우수 휴양지로 선정되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올해 우리는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즌 개장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고르니 워즈두흐' 측이 전했다.

### «Горный воздух» —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3 ноября 2023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Горы России», целью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и продвижение горнолыжного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или в ход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латформы горыроссии.рф с 1 августа по 15 октября.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лучшим курортом в свое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готовимся принять еще больше гостей, поэтому уже активно готовимся к открытию сезона. Высокая оценка стараний — главный подарок для нас», — отметил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 북방 다종경기 선수권대회, 사할린에서 시작

노골리키 지역에서 4일간 국민 스포츠 종목과 북방 다종경기 선수권대회 및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50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들이 활쏘기, 도끼 던지기, 장대 들고 달리기, 육상 세단뛰기, 튀잔(올가미) 목표점에 던지기, 썰매 뛰어넘기 등 6개의 다양한 종목들에서 경기가 이뤄졌다. 티뎨스코예, 포로

나이스크,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지역 등 북부에 있는 사할린의 여러 지역들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경기 참가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 Чемпионат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В Ногликах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дней проходил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Более 50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язались в шести различ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метании топора, беге с палкой, тройном прыжке, метании тынзьяна на хорей и прыжках через нарты.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евер острова прибыли команды. Это Тымов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Охин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ы.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спорти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 от 15 лет и старше.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 중국 영화제 개최

12월 15일부터) - 1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육차브리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중국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영화제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사할린 영화여가기관이 주최했다. 영화제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한 다양한 장르의 인기를 끈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영화제 개막작은 다평 감독의 '꿈을 향한 길은: 한 발자 그리고 영원히'라는 흥미진진한 댄스영화로 영화의 줄거리는 젊고 재능있는 댄서와 명성을 향한 그의 삶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는 제25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 출전해 관객 인기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영화 관객들은 역사 판타지 '루반의 마법'부터 판타스틱 액션영화 '지구 구원의 날'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로맨틱 코메디 '아주 큰 사랑', 범죄 액션 영화 '쇼크 웨이브2: 홍콩과의 전투', 판타스틱 스릴러 '큰 뱀 3'도 영화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이번 영화제의 상영작들은 관람을 위해 러시아어 자막을 제공해 관객들이 편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8면에 계속)

# 제21기 민주평통 러시아동부협의회 사할린 고문들에게 위임장 수여

지난 11월 27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 동부협의회 사할린 지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



아 동부협의회 황돈연 회장과 정하리 강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 진행되었지만 사할린 지역 고문들이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에 사할린 고문으로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 잘 알려진 김춘자, 김홍지, 박블라디미르 박순옥, 배 워토리아, 오진하 씨가 선정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상 박순옥, 오진하 고문이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이 참석하여 21기 민주평통 사할린 고문들을 격려해주었다. 황돈연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하고, 러시아 동부협의회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안을 공유했다. 그리고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방향을 자세히 소개했다. 황 회장은 한반도 통일에 러시아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고문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사할린 고문들에게 사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요청했다.

(배순신 기자)

# 장래 희망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다

## 한국어 경시대회 참가자의 발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제가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후,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 제 삶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아프리카 리비아 나라에서 일하실 때 태어났고, 7년 동안 거기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리비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시작됐으며 우리는 또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우크라이나어를 배웠고, 아랍어로 몇 가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는 학교에서 프랑스어도 공부했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독특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한국의 다른 특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한국,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가서 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학비 낼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여가시간마다 외운 한국어 단어를 반복했고 새로운 문법을 공부해서 실습했습니다.

4년 후에 저는 극동연방대학교 한국어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고,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장님 덕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 때문에 동양 언어를 배우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부하려는 사람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같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가 외국어 과외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몇 가지 전쟁을 경험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장래 희망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고,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연방대학교 사범대 (전공: 한국어교육학과) 학생 노보셀레바 마리아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머니의 날 기념행사 열려

## '어머님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어머니의 날을 맞아 지난 11월 25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야나), 사할린한인청년회(회장 오 블라디미르) 주최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후원으로 어머니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 초대된 1세 어르신 60여 명을 비롯해 2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0여 명이 함께 어머니의 날을 즐겁게 보냈다.

이날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주여성회 김 타치야나 회장이 모든 어머님들에게 따뜻한 축하하며, 올바른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어머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행사를 찾아온 손님들은 여성회에서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맛보며 흥겨운 공연을 관람했다. 무대에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 무용단과 희망 무용단이 즐겁고, 우아한 한국 민속춤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이에 호응하여 '잘 한다', '예쁘다', '좋다'라며 환호했다.

공연 순서마다 예쁜 차림을 한 무용단원들의 모습은 보기가 참 좋았다.

최 율리아 동포가수는 이날 주현미 노래 '여기는 사할린'(작곡 김영광 작사 이호섭)을 불러 어르신들을 울컥하게 했고, 그의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율리아는 할머니들과 어머님들에게 따뜻한 축하인사를 한국말로 전했다. 율리아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4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자신도 많은 축하를 받을 만했다. 이날 얼마 전에 새로이 주 청년회 회장으로 선정된 오 블라디미르도 노래 몇 곡을 불렀다.

그중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러시아 노래는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다.

최 드미트리 가수는 이날 여러 팝송, 특히 60-90년대 인기 있었던 노래를 불러 무대 앞에서는 춤판이 벌어졌다.

이날 초대된 귀빈 중 백살을 바라보는 할머니도 계셨다. 김하연 할머니는 내년 5월이면 백세를 맞이



한다. 막내딸과 며느리와 함께 온 할머니는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춤도 추셨다.

어머니날 행사는 어머니들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 되었다.

어머님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배순신 기자)

# 인천 '재외동포 웰컴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기능 '중복' 지적

## '재외동포 웰컴센터'만의 기능 차별화 필요 市 "운영 프로그램 다방면 검토"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의 기능이 재외동포청·외국인 지원센터와 중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안팎에서는 웰컴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 사업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 6월5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에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마련한다. 1천㎡(313평) 규모로 컨퍼런스룸과 회의실, 상담부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웰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웰컴센터 발전계획(2023~2027)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했다. 시는 센터를 통해 관광 정보와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재외동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정보와 구인·구직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웰컴센터의 역할이 재외동포청과 외국인지원센터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과 중복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구 가족센터는 한국어 교육 사업과 다문화 인식 개선 사

업, 구인 구직 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한인 네트워크 강화와 한글학교 등 교육지원,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 해외 입양 동포 등 소외 동포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재외동포 비율이 높은 원도심이 아닌 재외동포청이 있다는 이유로 송도국제도시에 웰컴센터를 마련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재외동포 3만6천788명 중 가장 많은 1만788명(29.3%)이 부평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연수구가 8천997명(24.4%), 남동구가 4천598명(12.4%), 미추홀구가 4천423명(12%), 서구가 4천249명(11.5%) 등이다. 연수구 재외동포들도 대부분 송도가 아닌 연수동 고려인 마을인 '함박마을'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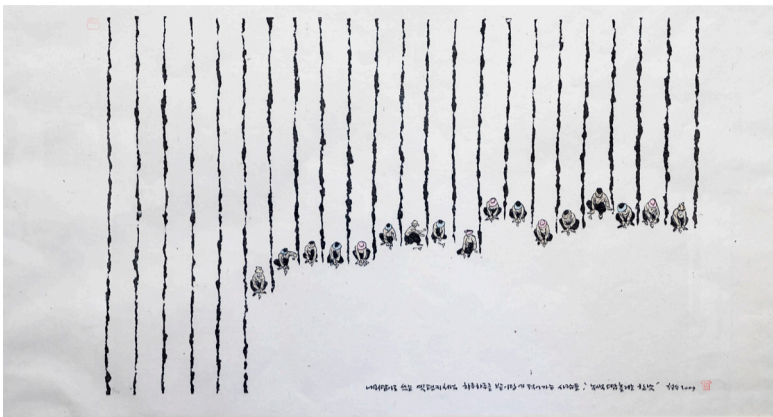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차별화와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재외동포웰컴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많은 의견을 모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 Современная графика Кореи



И Чоль Су (1954 г.р.)  
Полдень, омытый потом. 2009 г.  
Бумага ханжи, цветная ксилография. 68x123  
Поступление: с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СОХМ), 2017 г.  
КП- 10339 Г/в- 4302

«Труд» и «душа» –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понятия в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И Чоль Су. Его жизнь – это творчество, которое он совмещает с размеренной жизнью в деревне, возделывая землю. Художник, тонко чувствующий, ежедневно наблюдая единство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и природы, совершает открытия и претворяет виденное в пластическую форму, наполняя лист эмоциями тихой радости или сопереживания. «Люди, ежедневно работающие в поле, оставляют свой след в пахотной земле. След этот подобен стародавним письмам, записанным вертикально» («Полдень, омытый потом», 2009). Истинного воплощения художник достигает посредством превращения реальности в визуальную философию, подкрепленную концептуальным авторским текстом-размышлением.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ие критики называют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эзией в гравюре». Он всегда задает вопрос: «Что значит быть человеком, жить как человек? Душа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чрезвычайно запутана. Его дни проходят в метаниях и труде, и нет у него времени заглянуть внутрь себя. А душе нужен покой». Обретая свою гармонию, Чоль Су творчеством дает зрител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гружения в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ликнуться душой и удивиться или порадоваться.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 День матери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65 человек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превысило 120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ходе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и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танцев "Ариранг" и "Химанг", а также вокалисты О Владимир, Че Юлия и Че Дмитрий.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украшено теплым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женсовета Ким Татьяны Сексеновны.



Фото Виктории Бя

## Проект ПМЖ 2023, 2024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цам

30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ись два брифинга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обраний стали Департамен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реализуется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2021 г. Участие в собраниях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накану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ого собрания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об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в 2023 г.

Им были разъяснены положения по оплате расходов на проезд и на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Для удобства и ускорения адапт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вободных для аренды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компанией LH Construction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район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близи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жилым комплексам и домам/квартирам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огласно жеребьевке.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 середине января.

На собрании были разъяснены вопросы по гражданству,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и др. Ча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фици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Ре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ступали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p><b>II. 주요 지원 내용</b>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поддержки</p> <p>3. 임대주택 배정은 보건복지부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에 따라 2인 1세대(17,700천원/세대 지원) 배정</p> <p>Распределение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принципу 1 семья из 2 чел. согласно нормам оплаты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17,7 млн.вон/1 семь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p> <p>- LH 주거복지시스템 추천기능 활용하여 무작위 추천</p> <p>Метод жеребьевки: случайный розыгрыш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функции жеребьевки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LH</p>	<p><b>4. 임대주택 지원</b> 4. Об арен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p>
---	---

Почти такие же вопросы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и на втором собрании, где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в 2024.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начнется 4 марта 2024 г. и закончится 28 июня. Заявл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в дипведомствах РК.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на 2024 год еще не определено, но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будет как и в 2023 г. – 270 человек. В 2021 г., 2022 г. Было по 350 человек.

На собрании люди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о получении поддерж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2-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умерл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н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дан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общили, что ознакомлены с проблемой. Будут изучать данный вопрос. Было также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по получению гражданства, немало вопросов по конкретным случаям.

Материалы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на 2023 г. и на 2024 г.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иктория Бя

## 102 спортсмена сошлись в поединках по тхэквондо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 тхэквондо состоялся в стенах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 Н.А. Мамыкина.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участник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и с. Ильин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остязания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памяти тренера Син Тон Гун и воспитанника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е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Наш Холмск».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дшествовал парад команд-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Михала Гончарука. Ко всем собравшимся в ФОК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обратилась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ветлана Казанцев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ихаил Ан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ветлана Ким.

– От имени мэра Дмитрия Любчинова приветствую гостей наш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с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Светлана Георгиевна. – Сегодня к нам на турнир приехали три команд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одна – из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Честь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тстаивает местная команда клуба «Мужество». От всей души желаю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интересных поединков. Пусть победит сильнейши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очень важно хранить в сердцах память о людях, внесших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ин Тон Гун и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 памяти которых посвящен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достойны того, чтобы их помнили еще много поколений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сетила мама погибшего воспитанника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Холмска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ея, Наталья Васильевна.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ей была вруче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достойное воспитание сына и его вклад в защиту Родины.

Кроме того, за успеш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отмечены воспитанники холм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арвара Аруева, Кирилл



Ковалев, Диана Махначева, Ульяна Голди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наградили и тренеров, которые подготовили эт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иктору Романову, Эдуарду Назарову, Вячеславу Киму, Михаилу Гончаруку.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турнира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показа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из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структо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аттестац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на Даны, Пумы Союза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Мин Тэ Чур, обладателя черного пояса 3 дана по кикбоксингу и черного пояса 6 дана по тхэквондо Алексея Буторина, а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Ан Сухаги.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проходил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о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по программам туль и силовое разбивание, а также «Массог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распорядился усили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27 но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распорядился усили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в связи с возросшей напряжённостью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До Ун, распоряжение было да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ин Вон Сик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им Мён Су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о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я за действи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боеготовности, чтобы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могли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 заявил Юн Сок Ёль.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зросл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ла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В отв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остановила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нижении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от 2018 года. Аналогичный шаг сделал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Пхеньян обвинил Сеул в нарушении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рушила межкорейское во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т 2018 года и другие ключевы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Кроме того, проводя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 США и Япон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стремятся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овую войну. Об этом пишет 27 ноября центр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С тех пор, как Юг и Север заключили во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еул «жестоко нарушал его, угрожая миру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провели около 250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Подобная игра с огнём является проявлением крайне опасн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 пишет «Нодон синмун». Во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2018 го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буферных зон вблизи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в попытк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лучайные столкнов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в ответ на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разрабатывающего новые виды оружия, в том числе, твёрдотопливных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 РК, Китай и Япония будут готовиться к саммиту лидеров трёх стран

РК, Китай и Япония будут стараться провести саммит лидеров трёх стран в «кратчайшие, удобные для всех сро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Чин, подводя итоги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воими коллегами из Китая и Японии Ван И и Ёко Камикавой, состоявшихся 26 ноября в Пусане. Встреча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трёх стран прошла после трё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Минист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трёхсторонних саммитов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еулом, Пекином и Токио.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лидеры трёх стран встречались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Чэнду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Ране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агала провести саммит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днако это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маловероятным.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ужно на начал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отметил Пак Чи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лава китайского МИД Ван И отметил, что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 прекращалось даже во время глобаль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ндемии COVID-19.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у трёх стран имеется высокий потенциал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мнению Ёко Камикавы,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носит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мира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решению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Участники переговоров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ботать над решен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 Через 30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в РК сократится вдвое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34 лет составила в 2020 году 10 млн 210 тыс. человек. В случае сохранения нынешней тенденции быстрого старения и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в 2050 году она сократится до 5 млн 210 тыс.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двое. Если в 2020 году доля молодёжи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а 20,4%, 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в 2050 году она снизится до 11%. В 1990 году доля молодёжи составляла 31,9% населения — 13 млн 850 тыс. человек. В 2000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тился до 12 млн 880 тыс., в 2010 году до 10 млн 970 тыс., а в 2020 году до 10 млн 210 тыс.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да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растёт доля не состоящих в браке. Если в 2000 году таковых было 54,5%, а в 2010 году — 68,9%, то в 2020 году — уже 81,5%. Это 7 млн 840 тыс.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19-34 л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РК произошёл резкий 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Доля работающих женщин, относящихся к указа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увеличилась с 42,3% в 2000 году до 61,1% в 2020 году. При этом доля работающих молодых мужчин сократилась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 66% до 63,9%.

RKI

##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 скандалом поменяли руководство разведки

Постоянные склоки и интриги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сред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переполнили чашу терп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Вернувшись из зарубежной поездки в Европу, Ю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тправить в отставку сразу трех главных лиц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РС РК) — директора службы и двух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Место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й спецслужбы страны пока будет оставаться вакантным.

О том, что в руковод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е РК атмосфера отнюдь не самая благополучная, местные СМИ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ообща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бликации со ссылками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о том, что директор НРС Ким Гю Хён и ег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возглавляющий также 1-е Управление НРС (внешняя разведка) Кwon Чхун Тхэк, постоянно "грызутся" между собой по поводу кадровых назначений, появлялись регулярно.

Однако до поры до времени этот скандал удавалось удерживать под контролем, хотя тревожные "звоночки" бы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тказался подписывать назнач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новых начальников НРС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Затем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лидер "вызвал на ковер" и сделал выговор Киму и Кwonу, потребовав от них прекратить плести интриги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и заняться своим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Судя по последовавшим событиям, это не особо помогло. Недавно вновь появились публикации в СМИ, что директор и ег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вновь "сцепились". Пошли даже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начальник спецслужбы дал указание внутренним следователям НРС нача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встреч" его заместителя с бизнесменами. Также опять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что споры в отношении назначений на ключевые посты на среднем и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пецслужбы возобновились. Журналисты говорили, что среди помощников первого "зама" есть весьма влиятельная фигура, которая регулярно вмешивается в кадровые назначения, что не нравится директору НРС. Правда, другие говорили, что ряд назначений дел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знакомств, а 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честв и способностей.

Были также подозрения, чт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Кwon регулярно "сливает" информацию в СМИ и распространяет слухи о "скором смещении директора Ким Гю Хёна" с поста. Дело дошло до тог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шлось опровергать эти слухи. Вместе с тем,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 главной спецслужбе страны, точне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ее начальниками, "что-то не так".

В итоге оказалось, что журналисты были правы, а вся ситуация, если верить политологам, уже порядком надоела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По слухам, Юн не понравился не только сами склоки, но также и то, что была заметна тенденция у "главных разведчиков" "выносить сор из избы", привлекая к своим разборкам журналистов, регулярно доводя до них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тиворечиях в НРС.

В итоге лидер страны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е влезать в детали всех этих дрызг, просто уволив главных спорщиков.

Формальн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е стали упоминать о противоречиях внутри НРС, указав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для замен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мены дальнейшего курса развития: если до этого надо было восстановить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пецслужбами США, то теперь настала пора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работе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то и требует перестановок". Журналисты же восприняли эти пояснения с иронией, считая, что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стала порядком надоевшая президенту РК "грызня" между директором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м.

Вечером 26 ноябр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Ю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тправить в отставку директора НРС Ким Гю Хёна, его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и начальника 1-го Управления НРС Кwon Чхун Тхэка, а также начальника 2-го Управления НРС (работ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им Су Ён. Есть разные трактовки данных отставок: кто-то говорит, что Юн сам отправил в отставку директора НРС и его замов, кто-то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одписал добровольное прошение об отставке",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ормулировок, причиной для таких кадровых решений стали постоянные скандалы в руководстве спецслужбы и неспособность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сработаться. В итоге вышло,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изошла замена сразу трех ключев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о линии разведки, что крайне необычно для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РС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влиятельной и мощной спецслужбой, совмещающей не только функции разведки, но имея и некоторые контр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полномочия,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это касаетс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 должность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НРС и начальника 1-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значен Хон Чжан Вон,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посланника в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Лондоне. Начальником 2-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ал Хван Вон Чжин, до этого возглавлявший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ции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рамках НРС. Формально место директора НРС пока остается вакантным. 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до появления постоянного директора будет пока исполнять новый глава 1-го Управления Хон Чжан Вон.

Правда, уже появились спекуляци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то может стать но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могущественной спецсл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реди возможных кандидатур называются работавшие ранее в НРС Ким Сын Ён, Пён Ён Тхэ, Ким Сук, а также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К в Осаке Ким Ок Чхэ,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ратегии (НИИ при НРС РК) Ю Сок Ок и бывший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Чхон Ён У.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269(9214)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на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ую

Сеул, 25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оя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2,26 миллиона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4,4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Это почти эквивалентно 2,36 миллионам жителей юго-восточного города Тэгу. После сокращ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2022 году восстановилось и выросло на 120 000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0,9 процента до 189 000.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ернули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ы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ле пандемии и част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за пределами Сеула, которые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финансовыми проблемами,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я Кенгидо, проживает самое большое иностран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 101 850 человек, или 14,2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в основном китайцы и выходцы из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алее последовали Хвонсон (68 633), Сихен (68 482) и Суван (66 955), все 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В 11 регионах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10 процентов их населения — Юмсон,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Чхунчхон, 15,9 процентами,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Ансан, Йонгам,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14,2 процента), и Чинчхон,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Чхунчхон, а также районы Йеондынгпо и Гуро в Сеуле (12,5 процента).

«В Юмсоне находится 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Енгаме есть верфь, на которой работает мног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 сказал чиновник.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чем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хотя она отстает от США и других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По подсчетам ОЭСР,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составляют 3,5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из-за различ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змер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2 процента в Японии и всего 0,1 процента в Китае. Но эта доля составляет 30,7 процента в Швейцарии, 29,2 процента в Австралии, 16,8 процента в Германии и 14 процентов в США.

Ку Чжон Ву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гёнкван сказал: «Южная Корея, вероятно, скоро станет полноценно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траной, как некоторые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потому что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Нам нужно приспособить налогообложение, социальные обеспечения и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ые механизмы к этой тенденции».

## На Сахалине построят современный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с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м центром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построя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овременный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урорт объединит гостиницу на 120 мест, а также терм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медицинскими и СПА-кабинетами, термальной и бальнеозонами, открытым всепогодным подогреваемым бассейном.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озведут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РО) «ВФСО Динамо»,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курорт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ур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писали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Грин Флоу» и СРО «ВФСО Динамо».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более двух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роект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в рамках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 Создан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ур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не только инвестиция 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отрасль региона, но и забота о здоровье наших жителей,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ект на всех этапах его реализ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верим, что Green Flow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новым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туристов, источником отдыха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ля всех людей, посещающих эти прекрасные места. Этот проект принесет новую динамику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 Сахалине. В частности, четырехзвездочная гостиница будет иметь 5 этажей. В ней предусмотрят лобби, ресторан и конференц-зону. Внутри все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современ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всеми стандартами,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Антерра» Александр Тертычный.

Терм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лучит два этажа, на которых предусмотрят аква-зону, лобби, гастро-бар, хиллинг-центр и фитнес-залы.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курорта станет открытый всепогодный подогреваемый бассейн площадью 16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до 5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гости отеля, но и все желающ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ля СРО «ВФСО Динамо»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отдельно стоящи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18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 универсальным залом для баскетбола, волейбола, мини-футбола и залом для борьбы.

Запуск проекта,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создание более 180 рабочих мест,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7 году.

## В России создадут остров технологий

Сбе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ймутся развитием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Остров технологий» по ускорен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гиона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в ходе главной дискуссии на AI Journey 2023.

Сбе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ймутся развитием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Остров технологий» по ускорен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гиона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в ходе главной дискуссии на AI Journey 2023.

«ИИ Сахалин», или «Остров технологий», — проект п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лидирующи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по уровню внедр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его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снове больших данных (Big Data). В его рамках планируется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ИИ-технологии Сбера и всей стра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ить физи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апробации этих решений, а также раскрыть все факторы развития И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 кадры.

Герман Греф, Президен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Сбербанка:

«Проект «ИИ Сахалин» открывает новый этап в развитии масштаб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Мы ставим перед собой важную цель — создать регион-маяк с решениями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месте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ласти мы стремимся улучш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высить благополучие и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Уверен, что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и стрем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вместе с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решениями 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Сбера ускорят выполнение этой амбициозной зада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этапно идет по пути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всё больше переходит к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Но на этом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оборот, это создаёт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интеграции ИИ в большие потоки данных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рады объединиться со Сбер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лидирующий регион по ИИ. Отмечу, что внедрение ИИ-решений не является самоцелью. Нам важно раскрыть воз-

можности ИИ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й и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Промежуто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екта «ИИ Сахалин»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в рамках AI Journey 2024.

В 2023 году Сбер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СКБ САМИ ДВО РАН открыл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центр показал на VIII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Сбер —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оторый разв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внедрению ИИ-реш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За 2023 год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 партнеров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40 дизайн-сессий,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генерировали новые идеи примен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 их итогу более 650 идей взято в работу.

## КАМАЗ-Центр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нут стро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ют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МАЗ-Центра, в котором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комплекс услуг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обслуживанию и ремонту большегрузной техники.

База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а на первой линии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ая возводится в пригород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опрос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 это около 8 километров – мы планируем запустить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избави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т транзитного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благополучной экологии. Именно там, где будут пересекаться круп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артерии, и будет создан большо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частью которого станет КАМАЗ-Центр. Там же планируется в будущем разместить дорожно-ремон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перенести из города различные складские помещения, что позволит освободить большие площади в городе под застройку полезных для жителей объект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КАМАЗ-Центра предста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запчастьсервис»,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дилером и сервисным центром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и ряда зарубеж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грузовиков и спецтехники. Комп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олный спектр услуг по сервисному, гарантийному и послегарантийн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автомобилей и спецтехники различных шасси, включая ремонт сложных узлов и агрегатов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нового центр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ри полной поддержке руководства ПАО «КАМАЗ». Уже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м приступить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а в третьем-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нвестиции составят около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идти два-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запчастьсервис» Максим Меримский.

Современный центр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 дилерским стандартом.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ся офис продаж автотехники и оригинальных запасных частей,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ая выставка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спецтехники КАМАЗ, станция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ремонта грузов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спецтехники, автомойка, стоянка для большегруз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клад запасных частей.

Напомним, новая 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рядом с которой разместится круп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оединит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новой дороги составит более 40 километров.

##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или номинантов премии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Команда Путин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22 но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Команда Путина».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их числе – общественники, работ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Награды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с вами собрались дл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Команда Путина». Ее учредил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чтобы отметить тех, кто каждый день делает нашу страну лучше. Помогает бойцам,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западные рубежи нашей страны. В условия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внешнего давления только наша сплоченность вокруг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гарантирует стабильность страны.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все мы,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являемся командой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Очень многие позитивные перемен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происходят по поручению или с одобрен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зидент считает, что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ботой властей должно оставаться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И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ешая проблемы медицины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азвивая образование, 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стему и ЖКХ,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особую роль в работе по ис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играет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Он помогает налаживать диалог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обществом. С начало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разу же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по поддержке арми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обирают посылки для бойцов, плет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учат воинов 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 Сегодня в этом зале – не только неравнодушные, но и смелые люди.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в период непростого времени, вы не боитесь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проявляете свои лучшие качества и верность нашей великой Родине, – отм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Ирина Родина.

За активное и деятель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важнейших для России инициатив, неравнодушие и преданность стране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Команда Путина» отметили девять активных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их числе – инструктор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и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льга Цырендоржиев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моя награда, но и всех пенсио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тому что с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ы очень серьез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данную работу.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могает бойцам. Делают окопные свечи, вяж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и нашлемники,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собираю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отправляют деньги. Это зов сердца наших людей, – рассказала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 Помогаем нашим ребятам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сей день плетем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 за 2-3 дня одна сеть получается. Причем делаем сезонные варианты – сейчас белые, серые и синие пошлы, а летом были зеленые. Награда, которую я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а,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аши усилия не проходят даром.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всем нашим воинам, чтобы они вернулись к своим семьям живыми и здоровыми, – подчеркнула Ольга Цырендоржиева.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также были вру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ским брендам помогут увеличить продажи

О старте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новых российских брендов «Знай наших» объявили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и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Заявки по пяти номинациям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января.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аждый островной бренд. Как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естного рынка, так и для продаж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Приглашае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бращаться по любому вопросу в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здесь помогут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бренда,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модель,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цессы. Тем, кто готов продавать за рубеж, пол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еспечат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явить о себе на всю страну и привлеч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для бренд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 первом сезо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7 сахалинских брендов.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устойчивые темпы роста и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локал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января по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дукты и питан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товары», «Креатив», «ИТ»,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Подробнее на сайте [idea.roscongress.pf/brand](http://idea.roscongress.pf/brand).

Помим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известности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Это помощь в продвижении на маркетплейсах и в медиа, доступ к обучающим программам,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встречи с экспертами, членство в бизнес-объединениях, бесплатное участие в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 также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При выборе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темпы роста оборота за год, оценка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и регионов, где компа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мнение жюри конкурса, участие компании в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в проектах и программах партнеров конкурса. Среди партнеров конкурса – Первый канал, медиахолдинг МАЕР, Симпл, Zenden, Заспорт и другие.

Напомним,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Задача – поддерживать новые естественные бренды, которые в будущем могут распространиться по всем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ерезагрузк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 России.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порядка 5 тысяч заявок из всех субъект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более 30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выше 1200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Помощь бизнесу доступна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О доступной в регионе господдержке можно узнать в центре «Мой бизнес»: [mybusiness65.ru](http://mybusiness65.ru), 8 800 222 0123.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돌과 시간을 쌓은 '유네스코의 도시' 고창을 가다

## 세계적 자랑 거리 7가지 보물 보유 계절별 축제도 다양

**(서울=세계한인언론인협회) 조연숙 기자(대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 수천 년을 이어온 고인돌, 수백 년을 이어온 모양성, 30년 만에 계단식 논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한 운곡람사르습지... 그 모든 것을 내려보고 있는 높고 푸른 하늘을 가진 고창. 고창은 다채로운 문화와 장엄한 고풍이 스며있는 유네스코의 도시이다. 고창에는 유네스코가 자연과 문화 부문에서 인증한 7가지 보물이 있다.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 '고창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운곡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선운산과 병바위 등이 부문별 보물들이고, 이들을 모두 품고 있는 고창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일곱 번째 보물이다. 고창 전체가 세계적 보호구역으로 인정 받은 셈이다.

고창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북쪽은 황해와 접하고 동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이 이어져 전라남도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다. 고창의 무수한 역사문화 유적지를 짧게 묘사하면, 우선 고창 고인돌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쌓은 돌이다. 천오백 년 고찰 선운사에는 돌에도 나무에도 시간의 흔적이 들어있지만, 도솔천가에 심어진 단풍나무는 현재의 계절을 보여준다.

고창읍성(모양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원년에 세운 자연석 성곽이다. 당시 살던 이와 후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크기도 모양도 다른 돌을 쌓아올린 성벽 안에는 1970년대부터 복원한 옛 건물들과 소나무 숲이 아늑하고, 성벽에 올라 바라보는 성밖 풍경도 시원하다.

고창에는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자연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운곡람사르습지,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청보리밭, 여름의 해바라기, 가을철 메밀꽃을 즐길 수 있는 학원관광농장, 겨울철 철새 도래지로 부상한 동림저수지, 와인 글라스 형태의 구시포항 등이 그들이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는 과거 주민들이 습지를 개간하여 계단식 논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운곡저수지의 물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로 공급되면서 30년 넘게 폐경지로 유지됐다. 그 후 자연 스스로 현재의 원시 습지 상태로 복원되어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습지가 되었다.

'구름의 계곡'이라는 뜻의 '운곡'이라는 지명을 앞에 붙인 운곡람사르습지는 2011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습지에 86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는(Ramsar濕地)'로 등록됐다. 람사르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1971년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 책 발간한 생태마을 할머니들

고창 운곡습지 주변에는 6개의 생태마을이 있다. 독곡, 호암, 용계, 매산, 부귀, 송암 등 생태마을은 각각의 역사와 산업에 기반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태밥상과 생태도시락도 판매한다. 생태밥상과 생태도시락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로 주민들이 직접 조리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한지혜 씨는 지난 여름 세계웹포리대회 당시 할랄 기준에 맞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할랄에 대한 인식이 생겼으며, 할랄음식 또는 일부 식재료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생태마을 식당에 주문할 때 미리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리해준다고 설명했다.

독곡마을 할머니들은 나무와 풀 등 자생식물을 세밀화로 그리고 나물로 조리하거나 약초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얹힌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서 <엄니들의 그림책>과 <도곡마을 세밀화복> 등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 할머니들이 얘기똥풀은 부스럼의 특효약이었고, 제비꽃은 염증을 치료하는데 쓰였다거나, 곰뻐뿌리는 된장 양념에 무쳐서 먹는 '효자 나물'이라고 묘사한 글을 읽으면서 약도 음식도 귀하던 시절을 돌아볼 수 있다.

고창은 도자기의 고창이다. 자기의 재료인 석회석이 곳곳에서 산출되어 예로부터 자기소로서 입지조건이 잘 갖추어졌고, 덕분에 고창자기는 고려시대 번성했던 고려청자를 비롯해 조선 후기 숭병, 사발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간 도자기 기술을 전승했다고 한다. 독곡마을도 본래 도자기를 구어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 살았고 도자기를 만든 마을이라하여 '도굴안'으로 부르다 지금은 독곡이라 부른다.

고창에는 건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책마을 해리에서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책을 만드는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게르마늄 온천이 있는 석장리에는 놀이와 휴식을 위한 대형 워터파크 '석정휴스파'와 노약자와 환자들이 휴양을 할 수 있



고창판소리박물관 입구



고인돌 운반 광경을 그린 조형물



모양성제 축제 풍경

는 '고창 웰파크시티'가 있다. 방장산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고, 상하농원에서는 농사를 체험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람사르갯벌센터에는 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길, 자전거 도로 등 레저 시설과 함께 조개잡이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 연중 '축제'로 넘실대는 고창... 명물 먹거리도 풍성

고창은 축제의 고창이다. 2월 오거리 당산제, 4월 청보리밭 축제, 5월 무장읍성 축제,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고창 갯벌축제, 6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8월 해풍고추축제, 그리고 10월 고창 모양성제에 인파로 북적인다. 축제가 없는 겨울에는 철새를 볼 수 있다.

고창에는 명물 음식이 많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선운산 입구 주변 강에서 잡히는 풍천장어는 물론이고, 당도가 높으면서 과즙이 풍부한 고창수박, 지주식으로 양식해 국내 1%에 드는 명품 김은 이미 상품화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과일은 과일로도 즐기지만, 게르마늄 온천수로 대표되는 건강한 물과 발효에 적당한 온화한 기온을 만나면 품질 좋은 복분자주와 발효식초로 변신한다.

그밖에도 선운산도립공원,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백제 시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수사, 미당 서경주 시인을 기념하는 미당시문학관,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이었던 전봉준의 생가터와 무장포고문을 선포했던 무장기포지, 고창농약전수관과 판소리박물관, 판소리 대가 신재효 고택 등 역사와 문화 유적이 널려 있다.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도로 주변 군데군데 군락을 이루는 유채꽃들, 습지와 생태공원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관은 고창의 하늘을 더 높아 보이게 한다. 부디 고창하기를!(Do Gochang!)

### [우리말로 깨닫다]

## 누가 성인(聖人)인가?

공자께 제자가 선생님 이야말로 성인(聖人)이시라고 하자 공자는 손사래를 치며 나는 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자는 다만 본인은 배우는 것에 싫증을 내지 않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자 같은 분도 성인이 아니면 누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성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공자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성인의 첫 번째 조건은 배우는 데 싫증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싫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배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자는 논어의 첫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이(學而)편의 첫 부분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 不亦說乎)'라는 구절입니다. 논어를 학(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책의 첫 장만 읽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 문장이 모든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공자는 배우는 사람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기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그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가르침에 게으름이 없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이미 가르치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늘 배우는 사람이 늘 가르치는 사람인 셈입니다. 공자는 성인은 아니지만 배움에 싫증 내지 않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는 말을 한글로 쓰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스러운 사람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종종 어른이라는 의미의 성인(成人) 역시 성스럽다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成人)의 의미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만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를 칭찬할 때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칭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지만 누구나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참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가 바로 성인(聖人)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성스럽다는 의미의 성(聖)의 한자를 보면서 저는 성인의 덕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자세히 보면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의 한 자에는 귀 이(耳)와 입 구(口)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귀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인에게는 듣는 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을 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60의 나이를 이순(耳順)이라고 한 것은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든지, 말 안 해도 다 안다든지 하는 표현을 마구 쏟아냅니다. 성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聖)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이게 바로 공자께서 이야기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귀[耳]입니다. 듣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입[口]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잘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면 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건넨다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인(聖人)이 되는 것은 평생 가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Фестиваль китайского кино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первые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фестиваля китайского кино. Он пройдет в ККЗ «Октябрь» с 15 по 17 декабря.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о сахалинско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фестивале зрителям покажут яркие картины различных жанров, снятые в период с 2020 по 2023 год. Серию показов откроет захватывающ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драма «Шаг к мечте: Раз и навсегда» режиссера Да Пэна. Сюжет фильма повествует о молодом талантливом танцоре и его пути к славе. Премьера картины прошла на 25-м Шанха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где картину отметили премией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Помимо этого,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други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кино: о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энтези «Колдовство Лу Баня» до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боевика «День спасения Земли». Роман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Очень большая любовь», криминальный боевик «Ударная волна: Битва за Гонконг»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Змея 3» также войдут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киноленты представят для просмотра с рус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 что сделает просмотр максимально доступным для аудитории.

## 연금 수급자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범, 7백만 루블리 갈취

사할린의 주민들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속 걸려들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에 거액의 자금 갈취에 대한 4건의 범죄사건이 신고돼 접수됐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전했다.

내무국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피해자는 64세의 사할린 남성으로 주민 사회복지센터의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범은 연금을 재계산한다는 구실로 SMS로 코드를 알아내고는 연금 수급자의 신용카드에

서 5만 루블리를 빼갔다.

둘째 피해 사건은 66세의 사할린 남성에게 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남성이 전화했다. 사기꾼은 익명의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빼가려고 한다고 했다.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돈을 현금으로 꺼내 안전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남성은 사기꾼의 말을 따라 개인 저축통장에 든 돈을 현금화하고, 자동차를 팔아 현금인출기를 통해 사기꾼이 제시한 계좌로 350만 루블리를 입금했다.

그 다음 남성은 은행에서 120만 루블리 대출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226만4천750 루블리를 대출받아 다시 이 돈을 현금화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제시한 안전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그가 빼앗긴 금액은 7백만 루블리에 달한다.

돌린스크 지역 내무국에는 19세의 사할린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11월 21일 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이 피해 여성의 이름으로 65% 이자율의 10만 루블리 대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기범은 이뤄진 대출신청의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5만 루블리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은 5만 루블리를 제시한 계좌로 송금했다.

오하 지역 내무국에서도 한 건이 신고됐는데 42세의 사할린 남성에게 11월 3일 익명의 은행 전문가로 사칭한 자가 전화해 경찰이 피해남성에게 다시 전화할 거라고 전했다. 얼마 후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비우호국가에서 온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남성은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70만 루블리를 대출받아 현금화하여 사기꾼이 제시한 계좌로 송금했다.

## Пенсионер отдал мошеннику 7 млн. рублей после разговора по телефону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должают попадать на уловки мошенников. Так,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поступило четыре заявления о краже денеж-

ных средств на крупную сумму.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первы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казался 64-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ему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д предлогом пересчета пенсии злоумышленник узнал код из СМС. В результате с кредитной карты пенсионера похитили окол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Вторы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казался 66-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Мужчин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ему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банка. Злоумышленник сообщил, что неизвестные лица пытаются оформить кредит на его имя и похитить деньг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редства, пенсионеру предложили обналить их и внести на безопасные счета. Действуя по инструкци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а, сахалинец обналчил имеющиеся у него на счетах личные сбережения, продал автомобиль и через банкомат внес 3 500 000 рублей на счета мошенника.

Следом мужчина оформил кредит в банке на сумму 1 200 000 рублей, а в другом банке — на сумму 2 264 750 рублей, после чего снова обналчил деньги и через банкомат перевел их на безопасные счета. Ущерб составил около семи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ОМВД России по Долинскому район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19-летней сахалинки. Девушк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21 ноября ей позвонил, якобы, сотрудник банка, который сообщил, что на ее имя оформили кредит на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д 65%. Аферист предложил оплатить ей 50 тысяч рублей, чтобы не платить проценты по кредиту,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а и сделала.

Еще одно заявление поступило в ОМВД России по Охинскому району. Там 42-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рассказал, что 3 ноября ему позвонил псевдоспециалист банка, который сообщил, что заявителю перезвонит сотрудник полиции.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мужчине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и сообщил, что кто-то из недружественной страны пытается оформить на его имя кредит. В дальнейшем заявитель, действуя по инструкци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а, оформил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700 000 рублей, обналчил деньги и перевел их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자 하시든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